

서구 풍암동 ‘(가칭)복합커뮤니티센터’ 명칭 공모

25일까지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총 4명 선정해 100만 원 시상금 지급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서구 풍암동에 건립 중인 (가칭)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향유와 지식정보 공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오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개관 예정이며,

연면적 5,595㎡ 규모에 문예회관과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 서구의 대표적인 생활SOC 시설이다.
이번 명칭 공모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5일까지 이메일(cnuwoman@korea.kr)이나 방문(서구청 교육도서관과), 우편 접수(서구 경열로 33, 4층 교육도서관과)하면 된다.(기타문의, 서구청 교육도서관과 062-350-4595)
접수된 명칭은 내부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후 최종 심사위원회

를 거쳐 8월 중 공식 명칭을 선정하게 되며, 우수작에 선정된 총 4명에게는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1명), 장려상 10만원(2명) 가량의 상생카드를 시상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만들기 위해 명칭 공모를 준비한 만큼 새롭고 산뜻한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큰 호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월산동과 사직동 주민들이 줌바 댄스 배우기를 비롯해 유산소 서킷 트레이닝 등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고 있다.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다채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년여 만에 재개했기 때문이다.
남구에 따르면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최근부터 월산동과 사직동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직골 줌바 댄스와 순환운동 교실, 건강100세 집중관리 교실, 뇌건강 365 인지 교실 등 4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줌바 댄스 및 스탠딩 스쿼트를 비롯해 유산소 운동인 서킷 트레이닝을 결합한 순환운동 교실 프로그램이다.
먼저 월산동과 사직동 주민 20여명은 지난 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줌바 댄스를 배우고 있다.
다이어트 열풍이 일면서 춤과 피트니스가 적절히 혼합된 줌바 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근력과 유산소 복합 운동인 순환운동 교실 프로그램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성인 여성 80명은 매주 2차례씩 스탠딩 스쿼트 외에 9가지 종류의 근력 운동과 에어보드를 활용한 유산소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킷 트레이닝에 나서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대사증후군 예방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이밖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 15명은 폼롤러와 짐스틱, 스텝박스 등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배동신 아동미술제 10월 수상 선정·11월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채화의 거장, 배동신 화백을 기념하고 미술인재 발굴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제32회 배동신 아동미술제를 개최한다.
공모는 회화, 서예, 문인화 등 총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원서는 광산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2개월간 공모 기간을 거쳐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작품을 접수한다.
회화는 이메일(diggl@korea.kr)로, 서예·문인화는 광산생활문화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2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광주 동구는 최근 동구의 대표적인 예술전통시장인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징조형물과 예술안내도를 설치하고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 대인예술시장-남도달밤야시장' 개장일에 맞춰 진행했으며 임택 동구청장, 시·구의원, 대인시장 상인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구청 제공

동구 대인시장 상징조형물·예술안내도 설치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동구의 대표적인 예술전통시장인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징조형물과 예술안내도를 설치하고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 대인예술시장-남도달밤야시장' 개장일에 맞춰 진행했으며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대인시장 상인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설치한 상징조형물은 '봄·다시 봄'과 '오월 기억길' 총 2점이다. 대인시장 동문 입구에 설치한 '봄·다시 봄'은 시장에 장을 보러 온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한 높이 1.8m 규모의 랜드마크 조형물로 전통시장의 오래된 이미지가 아닌 현대에 주목했다. '오월 기억길'은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앞에 설치한 스토리텔링 담벼락 조형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눈을 피해 주먹밥을 전달하던 상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동구는 대인시장 내 주요 길목에 '예술안내도' 6곳을 설치하고, 올해 5억3천여만 원을 투입해 노후 천막 아케이드 교체 사업,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 실시 강서구청 민원여권과장 최기용 강사 참여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최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 대상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법' 제정 이후 달라진 내용을 전달, 원활한 보조금 사업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자 관리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대상기관 예산 담당자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참석할 수 있게 했다.
강사로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실무 카페' 운영자이자 예산회계실무 기본서 공저자인 최기용 현 서울 강서구청 민원여권

과장이 참여했다.
최기용 강사는 ▲지방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해당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부정수급자 사후 제재 강화 등 보조금 관리기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한편 북구는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보조금 사이버교육 의무이수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보조금 사업 지원과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